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면, 잘 안 보이는 것은
큰 것만 보고 멀리만 보고 살라는 것이고

귀가 잘 들리지 않은 것은
필요 없는 작은 소리는 듣지 말고
필요한 큰 소리만 들으라는 것이라지요.

이가 시린 것은
연한 음식만 먹고
소화불량 없게 함이고

걸음이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가지 말라는 겁니다.

머리가 하얘지는 것은
멀리 있어도 나이 먹은 사람이란 걸
알아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시랍니다.

정신이 깜빡 하는 건
살아온 세월을 다 기억하지 말고
좋은 기억, 아름다운 추억만, 생각하라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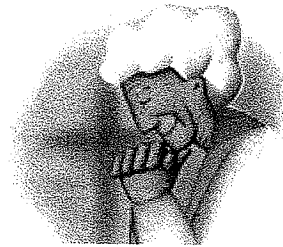
◀그땐 그랬지▶ 추억의 우표

급한 소식은 전보를 치던 그 시절, 침을 묻혀 부치는 우표가 나오기 전에는 마땅한 풀도 흔치 않아 밥풀로 붙였습니다. 4원짜리 벼베는 농부, 1원짜리 농악우표, 3원짜리 세종대왕 우표에는 '부모님 전상서'로 시작되는 안부편지, 밤새 가슴두근거리며 쓴 연인의 사랑이야기, '보고싶은 친구에게'로 시작한 우정이 가득했었습니다.

지금도 세련된 우표 붙인 편지를 우체통에 넣고 돌아 설때면 왓지 막연한 그리움이 되살아납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예수! 돈으로 살 수 없어 사랑으로 얻었다” (요13:35)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6권 23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5년 5월29일
☎ 369- 5077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www.calvary.org.nz		

“읽다가 눈물난 글”



어느 책에서 읽은 실화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에게는 세 분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자 한국에 있는 두 아들과 당시
주미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던 셋째 아들이 귀국해서
어머니의 장례를 정성껏 잘치르고 장례식이 끝난 며
칠 후 어머니가 남기신 재산을 처리하기 위해 삼 형
제가 다시 모였습니다.
먼저 큰형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이 남기신 유산을 공무원으로 제일 어렵게 사는 막내에게 주는 것이 어떠
나?"

그러자 둘째형이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하며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막내가 말했습니다.

"형님, 그건 안될 말씀입니다. 재산은 당연히 큰 형님이 받으시든지 아니면 사업
가이신 작은 형님이 받으셔야지 막내인 제가 어찌 그것을 받겠습니까? 제가 원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자 큰 형님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막내는

"어머님이 평생 보시던 성경책입니다"

"야, 그것이야말로 장자인 내가 봐야지!"

그러자 둘째 아들도 반드시 장자의 소유권만은 아니라며 자신의 주장을 폈습니다.
그때 막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들께서는 늘 어머니가 묻혀 계신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늘 해외로
떠도는 몸입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듯 성경책을 갖고 다니며 읽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따라 행하기▶

우리의 육신이 하기에 따라서
우리 영혼을
지옥에도 보낼 수 있고
천국에도 보낼 수 있다

◀인품따라 행하기▶

나 때문에
안되게 하지 말고
나 때문에
되게 하라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도자
*찬송 Hymn	27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32 (시 143편)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송 Hymn	317장	
기도 Pray		장현중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열왕기상 19:1-14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은십자가 성가대 (4남여선교회)
설교 Sermon	신앙생활에도 슬럼프가 있다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455장	
헌금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5.6월의 예배위원◆

◆5,6월의 교회력◆

일자	기도	헌금위원	주방	은십자가	주일	예배와 모임
9	장현중	김심홍	6구역	4남여	5	성찬주일 구역예배(10)
5	정덕수	김홍석	7구역	구역장, 인도, 권사	12	믿음의어머니기도회(14)
2	정희자	김영경	8구역	나무십자가	19	식사친교주일
9	지찬영	김윤숙	항존직	나무십자가	26	이삭줍기주일 선교회.당회
6	최재학	김인희	9구역	나무십자가		

2005년 교회생활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1. 성경 1독만 하기(하나님 사랑)	*여러교회를 다녀 본 후 결정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2. 전도하지 말고 대신 친절하자(이웃 사랑)	
3. 처음 만난 날 처럼(교우사랑)	
주일예배, 아동, 학생: 낮 12시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6:00	청년부: 토 저녁 4시

*6월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6, 25, 6, 29등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는 우리나라가 되기위해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는 타향에서의 마음입니다.

- 교우소식
 - *권영희 집사, 한국으로 지난주에 귀국.
 - *<이사> 김경구, 강은미 집사. 442-1922 15 Condor Pl. Unsworth Heights
- 정기당회, Tea Time 후
- 남여선교회 정기회의
 - *우리교회 회의원칙:가급적 주일에 회의는 갖지 않되 선교회는 주일에 갖습니다. 회의시 예배에 받은 은혜가 손상되지 않도록 인격을 갖춘 회의가 되도록 합니다.
- 나무십자가 성가대원" 모집
 - *6월 둘째주일부터 나무십자가성가대로 주일예배를 섬깁니다
 - *주일아침 11시 연습의 부지런함,, 예배 후 1시간 연습의 인내 그리고 부부싸움을 하고도 결석하지 않을 책임감을 가지신 교우의 봉사를 기다립니다.
(문의: 최덕수 성가대장, 신경화 집사)
- 수요예배: 1년 4개월에 걸친 "래위기강해"를 마쳤습니다. 한자한자 짚어가는 하나님 말씀으로의 계속된 여행에 기도하여 주십시오. 마음을 모은 수요찬양단원들이 받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는 찬양의 은혜! 그 은혜가 무척 풍요롭습니다.
- "두란노큐티축제"
 - 큐티성령집회 : 6월1일(수)-2일(목) 저녁 7:30. 뉴질랜드 온누리교회
 - 큐티세미나(회비\$20): 2일(목)-3일(금) 오전 10시-오후2시. 한우리교회
 -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받는 집회와 스스로 성경읽고 묵상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착한 시인들▶ 추억 조병화

잊어버리자고
바다 기슭을 걸어보던 날이
하루
이틀
사흘.

여름 가고
가을 가고
조개 줍는 해녀의 무리 사라진 겨울 이 바다에
잊어버리자고
바다 기슭을 걸어가는 날이
하루
이틀
사흘.

침침해진 눈 맑히려 오랜만에 Mission Bay에 나갔습니다. 그 많던 여름사람들은 어디없고 모래들도 혼한 발자국 하나 변변히 남겨놓지 않았습디다. 혹시나 뒤집어 본 조개 역시 반쪽 몸뚱아리만 남긴 쓸쓸함이었습니다. 물에 발이 담기면 나도 바다가 될런지요? 지난 여름 바닷가에 서 조개 줍던 생각을 뜬금없이 떠오르게 한 바닷가, 아름다운 것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남게 되나 봅니다. 나는 어떤 인상으로 사람들속에 남을지 두렵습니다.